

## 12. 공동체와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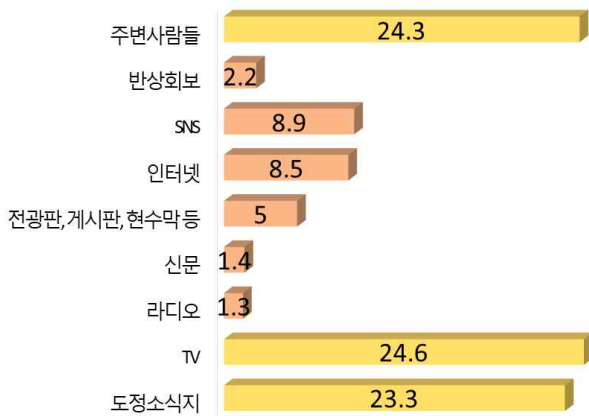
- ▶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88.8%이며, 이들 중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90.2%로 높게 나타남
- ▶ 도로명주소 사용의 주된 이유는 「배송관련(86.4%)」이며, 다음으로 「민원업무」(53.9%), 「물건구매」(14.6%) 순으로 나타남

도로명주소 사용 및 사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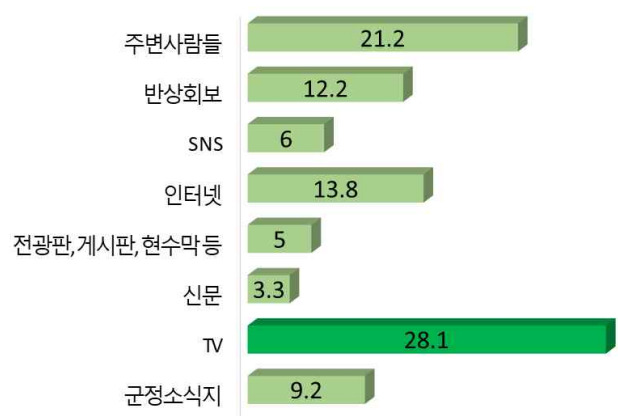


- ▶ 곡성군민이 전라남도 행정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은 「TV(24.6%)」이며, 곡성군 정보 습득의 주요 수단도 「TV(28.1%)」로 나타났으며 곡성소식지, SNS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전남도 정보 획득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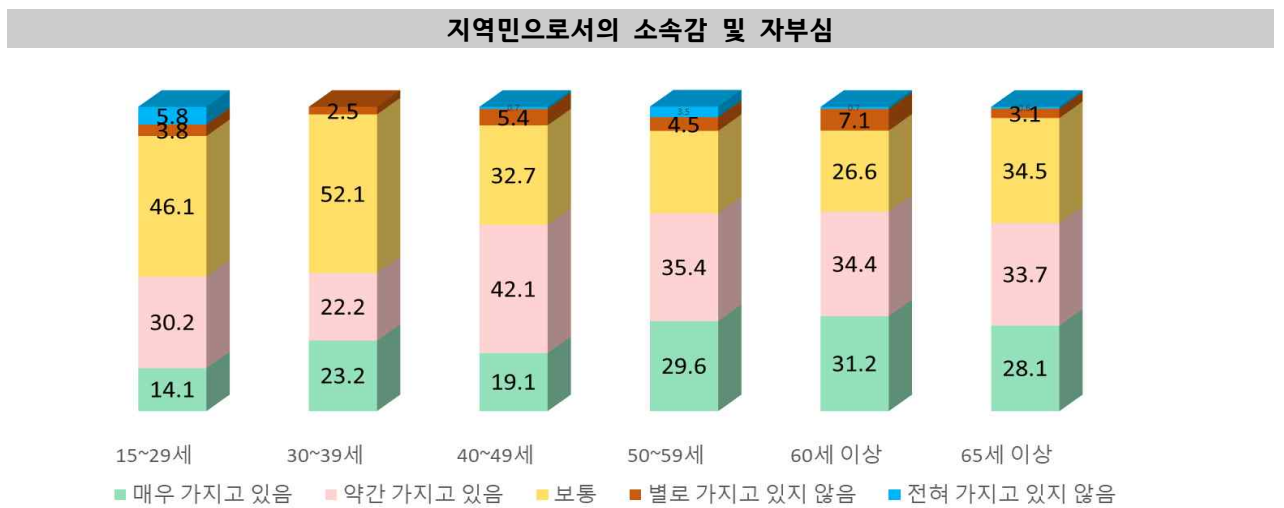
곡성군 정보 획득 매체



- ▶ 곡성군민 중 36.4%가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밴드 등)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SNS 중 「카카오톡(73.5%)」를 가장 많이 이용함



- ▶ 곡성군민이 알고 있는 전라남도 대표 SNS에는 「페이스북(49.7%)」이 가장 많았고 「카카오토티(34.1%)」 순임. 곡성군민이 이용 중인 전라남도 대표 SNS도 「페이스북(49.1%)」이며 40세 이상은 「카카오토티」가 가장 많음
- ▶ 전라남도 대표 SNS를 이용하게 된 계기로는 「SNS를 통해서(48.8%)」가 가장 많았으며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순으로 나타남
- ▶ 곡성군민 10명 중 9명이 지역민으로서 ‘보통 이상’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94.1%), 2015년 대비 ‘매우 가지고 있음’의 비율은 증가하고,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음



- ▶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으로, ‘40대’ 와, ‘사무’ 와 ‘전문/관리’ 직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12. 공동체와 사회참여 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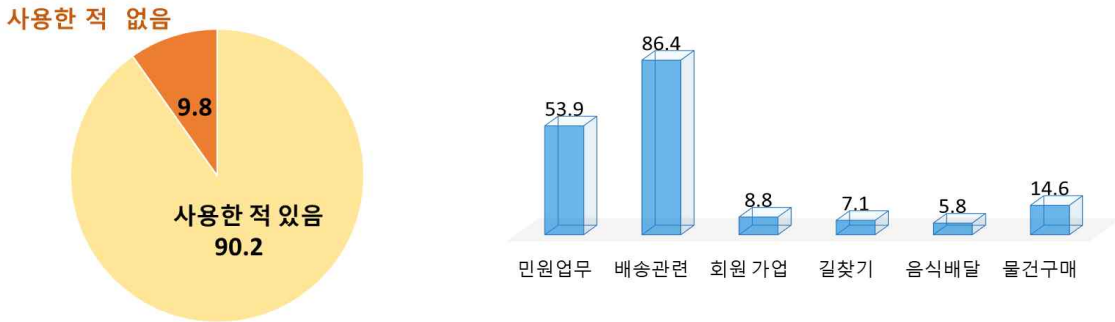
- 12 - 1 도로명 주소 사용률
- 12 - 2 행정정보 획득 및 홍보 매체
- 12 - 3 도민 SNS 이용실태
- 12 - 4 전라남도 대표 SNS 인지 및 이용계기
- 12 - 5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 12 - 6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

## 12 - 1. 도로명주소 사용률

### 곡성군민의 89%가 도로명주소를 알고, 이중 90%가 사용 중

-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88.8%(2015년도에 비해 6% 상승)
  - 「도로명 주소를 모른다」에 응답한 비율은 11.2%로 10명 중 9명은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석곡권의 도로명주소 인지율이 가장 높고(91.7%), 곡성권(89.9%), 옥과권(85.7%) 순으로 나타남
-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적 있다」에 응답한 비율도 90.2%로 나타남
  -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적 없다」는 9.8%로 큰 차이를 보임
- 도로명 주소 주요 사용 분야의 주된 이유는 「배송관련」과 「민원업무」로 나타남
  - 「배송관련」에 응답한 비율이 86.4%, 「민원업무」에 응답한 비율이 53.9%로 나타남
  - 성별에서 도로명 주소를 남자는 「민원업무」 분야에서 여자보다 많이 사용한 반면 여자는 도로명 주소를 「배송관련」에서 남자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도로명주소 사용 및 사용 분야]



<표 12-1> 도로명 주소 인지 및 사용여부, <표 12-3> 주된 사용분야 (단위: %)

구 분	도로명 주소 인지여부			도로명 주소 사용여부				
	계	알고 있다	모른다	계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다		
2017년 <지역별>	100.0	88.8	11.2	100.0	90.2	9.8		
곡성권	100.0	89.9	10.1	100.0	94.2	5.8		
석곡권	100.0	91.7	8.3	100.0	89.0	11.0		
옥과권	100.0	85.7	14.3	100.0	85.6	14.4		
<성별>								
남자	100.0	93.1	6.9	100.0	92.2	7.8		
여자	100.0	84.7	15.3	100.0	88.1	11.9		
구 분	도로명 주소 주된 사용분야(복수응답)							
	계	민원업무	배송관련	회원 가입	길 찾기	음식배달	물건구매	타
2017년	100.0	53.9	86.4	8.8	7.1	5.8	14.6	0.1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 12 - 2. 행정정보 획득 및 홍보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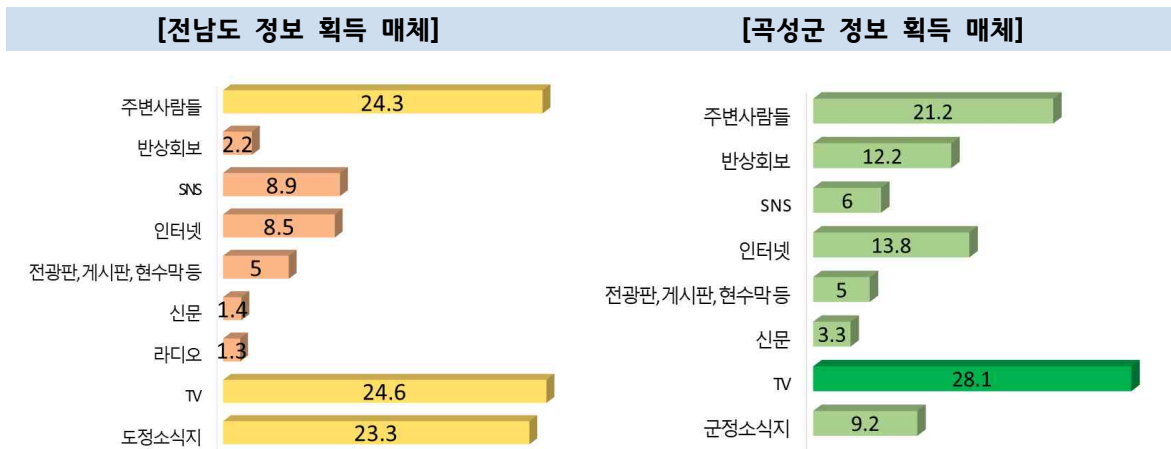
"도·군정 정보 획득매체"로 「TV」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TV」와「신문」은 감소, 「인터넷」「SNS」는 증가

### • 전남도 정보 획득매체로 「TV」에 응답한 비율이 24.6%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행정정보를 얻는 수단은 「TV(공중파, 유선방송)」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 사람들(24.3%)」, 「도정 소식지(23.3%)」, 「SNS(8.9%)」 순으로 나타남

### • 곡성군 정보 획득매체로 「TV」에 응답한 비율도 28.1%로 나타남

- 곡성군의 행정정보를 얻는 수단은 「TV(공중파, 유선방송)」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 사람들(21.2%)」, 「인터넷(13.8%)」, 「반상회보(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식지, SNS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4> 전라남도 도정정보 획득매체

(단위: %)

구분	계	도정 소식지 (새뜸)	TV (공중파,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 (도 홈페이지, 이메일)	SNS (트위터, 페이스북)	반상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
2015년	100.0	21.6	41.9	1.3	2.4	2.0	6.3	3.4	0.9	19.2	1.1
2017년	100.0	23.3	24.6	1.3	1.4	5.0	8.5	8.9	2.2	24.3	0.5
<지역별>											
곡성권	100.0	22.4	25.2	0.3	1.7	1.4	12.0	6.1	3.1	27.2	0.4
석곡권	100.0	36.1	24.6	4.2		2.2	1.3	5.5	0.7	24.5	0.9
옥과권	100.0	16.9	23.8	0.9	1.8	11.0	8.3	14.5	1.8	20.5	0.5

<표 12-5> 곡성 군정정보 획득매체

(단위: %)

구분	계	도정 소식지 (새뜸)	TV (공중파,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 (도 홈페이지, 이메일)	SNS (트위터, 페이스북)	반상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
2015년	100.0	5.5	30.4	1.0	7.2	4.1	13.9	0.8	12.7	23.2	1.2
2017년	100.0	9.2	28.1	0.4	3.3	5.0	13.8	6.0	12.2	21.2	0.8
<지역별>											
곡성권	100.0	6.9	26.0	0.4	2.3	2.8	17.7	3.1	13.3	27.0	0.4
석곡권	100.0	12.3	37.5	0.5	4.1	0.5	4.0	7.7	17.7	13.1	2.7
옥과권	100.0	10.2	25.3	0.3	4.1	10.3	14.7	8.5	7.7	18.6	0.3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 12 - 3. 도민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이용 실태(복수응답)

SNS 「이용하고 있다」 36.4%,  
 "이용 중인 SNS"는 「카카오토키」가 73.5%로 가장 많아

- 곡성군민의 "SNS 이용여부"로 「이용하고 있다」가 36.4%로 나타남
  - 지역별로 옥과권(42.4%), 곡성권(37.0%), 석곡권(24.5%) 순으로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성별로 「남자(42.9%)」가 「여자(30.3%)」보다 SNS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19세~29세」는 "SNS 이용여부"로 「이용하고 있다」가 84.9%로 나타나며, 「65세 이상」은 3.2%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곡성군민의 "이용 중인 SNS"로 「카카오토키」가 73.5%로 가장 많고, 「페이스북」 「밴드」가 각각 52.7%, 41.3%로 나타남
  - "주요 이용 중인 SNS"로 지역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연령별로 「15세~29세」는 "이용 중인 SNS"로 「페이스북」이 84.1%로 가장 높고, 「인스타그램」 사용 비중도 35.7%로 연령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2-3 > 도민 SNS(사회연결망서비스) 이용 실태 (단위: %)

구 분	계	이용하고 있다	이용 중인 SNS								이용하지 않는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토키	인스타그램	밴드	기타	
2015년	100.0	30.7	30.5	44.6	17.5	29.6	79.7	4.4	-	1.7	69.3
2017년	100.0	36.4	22.4	52.7	13.7	30.0	73.5	14.8	41.3	0.4	63.6
<b>&lt; 지역별 &gt;</b>											
곡성권	100.0	37.0	24.9	54.9	12.4	22.9	74.3	18.7	38.4	0.5	63.0
석곡권	100.0	24.5	30.2	72.7	34.7	37.7	80.5	6.3	58.9	0.0	75.5
옥과권	100.0	42.4	17.0	43.6	8.0	35.2	70.3	13.5	38.5	0.3	57.6
<b>&lt; 성별 &gt;</b>											
남자	100.0	42.9	26.3	52.0	15.1	30.9	74.5	10.0	39.2	0.0	57.1
여자	100.0	30.3	17.2	53.6	11.8	28.9	72.1	21.2	44.0	0.9	69.7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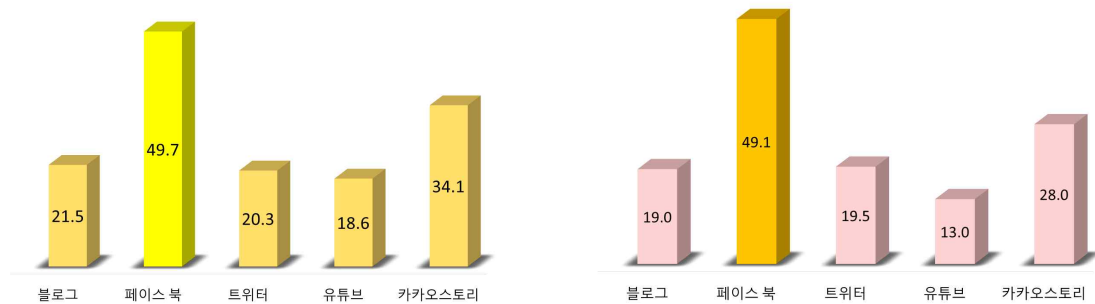
## 12 - 4. 전라남도 대표 SNS 인지 및 이용계기

### 곡성군민은 전라남도 대표 SNS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이용

- 곡성군민의 “알고 있는 전라남도 대표 SNS”는 「페이스북」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34.1%로 나타남
  - 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알고있는 전라남도 대표 SNS”는 「페이스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곡성군민의 “이용 중인 전라남도 대표 SNS”로 「페이스북」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이용 중인 전라남도 대표 SNS”는 「페이스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19~29세」는 “이용 중인 전라남도 대표 SNS”로 「페이스북」이 65.9%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은 「카카오스토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곡성군민의 “전라남도 대표 SNS 이용 계기”로 「SNS를 통해서」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전라남도 대표 SNS 이용 계기”로 「SNS를 통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19~29세」는 “전라남도 대표 SNS 이용 계기”로 「SNS를 통해서」가 60.5%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은 동료, 지인을 통해서가 1순위로 나타남

[알고 있는 전라남도 대표 SNS]

[이용 중인 전라남도 대표 SNS]



<표 12-7 > 알고있는 전라남도 대표 SNS

(단위: %)

구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2015년	37.9	32.7	45.1	5.7	24.7
2017년	21.5	49.7	20.3	18.6	34.1
<b>&lt; 지역별 &gt;</b>					
곡성권	25.1	54.1	25.6	16.8	24.1
석곡권	22.0	50.3	27.3	9.5	48.5
옥과권	17.4	44.6	11.4	24.5	39.3
<b>&lt; 성별 &gt;</b>					
남자	20.3	53.1	22.3	19.5	36.1
여자	23.1	45.3	17.7	17.5	31.4

<표 12-8 > 이용중인 전라남도 대표 SNS

(단위: %)

구 분	블 로 그	페 이 스 북	트 위 터	유 튜 브	카 카 오 스토리
2015년	26.5	35.1	6.4	21.3	63.8
2017년	19.0	49.1	19.5	13.0	28.0
< 지역별 >					
곡 성 권	23.5	54.1	25.7	11.3	20.8
석 곡 권	7.1	55.6	27.3	8.7	33.8
옥 과 권	20.2	39.4	7.8	17.5	33.5
< 성 별 >					
남 자	16.5	56.3	21.0	14.3	29.6
여 자	22.9	38.0	17.3	11.1	25.5
< 연령별 >					
15 ~ 29 세	11.0	65.9	22.6	7.6	17.6
30 ~ 39 세	7.9	41.2	26.7	31.0	31.2
40 ~ 49 세	26.5	30.8	16.0	6.0	34.8
50 ~ 59 세	31.1	36.3	10.6	15.4	36.9
60 세 이상	13.7	0.0	40.1	13.7	46.3
65 세 이상	41.0	0.0	6.1	0.0	84.2

<표 12-9 > 전라남도 대표 SNS 이용계기

(단위: %)

구 분	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SNS 이벤트나 광고 및 트친, 페친을 통해서 (RT, 공유 등)	친구, 동료, 이웃, 지인 등의 소개를 통해서	기타
2015년	10.3	48.3	0.9	40.5	-
2017년	12.4	27.6	48.8	19.5	-
< 지역별 >					
곡 성 권	20.2	14.7	52.8	20.5	-
석 곡 권	6.7	39.9	46.3	15.7	-
옥 과 권	5.7	36.9	45.1	20.5	-
< 성 별 >					
남 자	12.2	24.4	54.7	15.1	-
여 자	12.6	31.9	40.8	25.5	-
< 연령별 >					
15 ~ 29 세	0.0	32.1	60.5	11.9	-
30 ~ 39 세	6.7	48.3	57.1	12.9	-
40 ~ 49 세	19.3	19.6	35.2	33.9	-
50 ~ 59 세	20.8	31.3	27.0	25.6	-
60 세 이상	11.8	17.0	54.2	17.0	-
65 세 이상	0.0	23.3	25.7	72.8	-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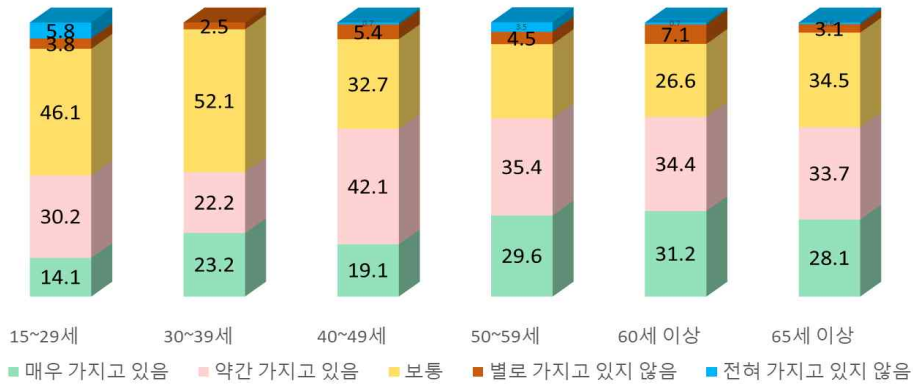


## 12 - 5.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곡성군민 10명 중 9명이 지역민으로서 '보통 이상'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에 대해 '보통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94.1%로 나타남
  - 그 중에서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약간 가지고 있음」(33.7%), 「매우 가지고 있음」(24.9%)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매우 가지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2015년도 대비 7.7% 늘었으며(17.2%→24.9%),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5년도 대비 3.8% 감소(9.8%→6%)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음
  - '60세 이상'의 「가지고 있음」 응답 비율이 65.6%로 가장 높고 '19~29세'의 비율은 44.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사무직', '농림어업' 직업 종사자들이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이 높게 나타남
  - 직업별의 경우, '사무직(73.2%)'과 '농림어업(72%)' 직업에서 70%이상이 「가지고 있음」으로 응답하여 다른 직업들에 비해 높은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표 12-10>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단위: %)

구 분	계	가지고 있음			보통	가지고 있지 않음	가지고 있지 않음	
		매우 가지고 있음	약간 가지고 있음	보통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음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2015년	100.0	53.1	17.2	35.8	37.2	9.8	6.1	3.7
2017년	100.0	58.6	24.9	33.7	35.5	6.0	4.0	1.9
<연령별>								
15~29세	100.0	44.3	14.1	30.2	46.1	9.6	3.8	5.8
30~39세	100.0	45.4	23.2	22.2	52.1	2.5	2.5	0.0
40~49세	100.0	61.2	19.1	42.1	32.7	6.1	5.4	0.7
50~59세	100.0	64.9	29.6	35.4	27.1	8.0	4.5	3.5
60세 이상	100.0	65.6	31.2	34.4	26.6	7.8	7.1	0.7
65세 이상	100.0	61.8	28.1	33.7	34.5	3.7	3.1	0.6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 12 - 6.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38점

- 삶에 대한 만족도는 「5점」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7점」이 22.6%로 나타났으며, 「8점」(15.2%), 「6점」(16.6%) 순으로 나타남
  - 「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5%로 거의 없음
  - 연령별로 40대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음(6.83점)
- '사무' 직업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서비스/판매' 직업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직업별의 경우, '사무' 직업의 만족도 평균은 7.15점으로 다른 직업들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 '서비스/판매' 직업의 만족도 평균은 6.25점으로 다른 직업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



<표 12-11>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평균	점수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2015년	6.07	100.0	0.6	1.0	2.4	3.9	4.9	36.5	10.4	15.9	12.2	5.7	6.5
2017년	6.38	100.0	0.5	0.2	1.3	4.0	4.6	23.8	16.6	22.6	15.2	5.2	6.0
<지역별>													
곡성권	6.33	100.0	1.0	0.3	0.9	4.7	6.2	19.8	18.3	22.6	16.8	4.4	5.2
석곡권	6.33	100.0	-	-	2.2	3.1	3.6	23.8	15.9	31.0	13.6	3.4	3.4
옥과권	6.48	100.0	0.2	0.3	1.3	3.7	3.2	28.8	15.0	17.6	14.1	7.1	8.6
<연령별>													
15~29세	6.32	100.0	1.4	-	1.2	2.6	3.8	20.5	21.0	28.6	14.7	1.8	4.5
30~39세	6.66	100.0	-	-	2.5	4.2	1.4	12.1	19.0	38.0	10.3	4.8	7.6
40~49세	6.83	100.0	-	-	-	2.1	4.1	24.8	9.9	22.8	19.2	7.7	9.5
50~59세	6.63	100.0	0.5	-	1.1	3.0	4.3	23.1	13.2	20.6	19.9	7.3	7.0
60세 이상	6.28	100.0	1.4	-	0.7	3.4	2.9	31.5	18.2	13.7	18.1	4.7	5.5
65세 이상	6.07	100.0	0.2	0.6	1.8	6.0	6.4	26.2	18.1	19.4	12.0	4.7	4.6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